

규범적 귀인에서 상식적 귀인에 이르는 통합적 귀인모형의 모색

최상진 · 최순영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고에서는 규범적 귀인모형과 사회적 귀인모형을 병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Heider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귀인이론에 대한 사회적 귀인이론가의 비판을 고찰·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앞의 분석을 기초로 세가지 기본전제를 가정하였다. 그리고 귀인과정에 내포된 요인과 과정을 확인하고 개념적 수준에서 살펴 봄으로써 기본전제를 이론적 용어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정적인 통합모형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I. 서 론

Heider, Jones와 Davis, Kelley로 이어지는 귀인이론은 그 이론적 정교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심리학의 특히 인지사회 심리학의 필수불가결한 파라다임을 구축해 왔으며, 이제는 사회심리학을 넘어서 사회과학 제 분야의 영향력있는 이론으로서 그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다(Fincham, Jaspars, 1980). 또한 전통적인 행동주의와 병행하여 사회과학의 발전에 있어 새로운 파라다임 혁명에 비견할만한 이론적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고 평가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실험사회심리학 또는 사회심리학 일반의 이론과 연구방법을 주도해왔던 행동주의 및 전통적 실험주의는 의적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행동 또는 인지적 반응(언어적 반응을 포함하는)을 연구해 왔으며, 인지현상 자체를 행동에 부수되는 종속현상으로 그 가치를 격하시켜왔다. 그러나 귀인이론과 그

아류인 사회적 포상이론에서는 인지적 구성과 과정 자체를 이론과 연구의 주 대상으로 삼으며, 인지를 통해 행동을 이해하려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행동주의와는 역방향의 설명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귀인이론이 보편적인 사회인지적 이론체계로서 세력을 더해감과 더불어 이에 대한 비판도 비례적으로 증가되어왔다.

예컨대, Deschamps(1983)는 Kelley의 이론이 지나치게 개인중심적이며 비사회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회적 귀인'을 제시하였다. Jones와 McGillis(1976)도 Kelley의 귀인모형에서 간과하고 있는 대상인물에 대한 기대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귀인과정에서 행위상황뿐만 아니라 행위자 자신의 소인에 대한 기대와 소속집단에 대한 기대가 귀인과정에 개입된다고 주장하면서, 기대를 대상인물중심적 기대와 소속범주중심적 기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대요인과 관련하여 Arcuri(1982)는 범

주화와 고정관념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Hewstone, Jaspars, & Lalljee (1982)도 사회적 법주와 관련하여 사회적 표상 및 사회적 정체가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긍정적 유형의 행동과 부정적 유형의 행동 귀인에서 귀인대상인들이 내집단성원인가 아니면 외집단성원인가에 따라 기질귀인 대 상황귀인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귀인 또는 범주적 귀인 주장론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Kelley 일파의 개인중심적 귀인모형은 이제 더 이상 귀인의 사회적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실험실내에서의 귀인이 아닌 일상적인 귀인에서 귀인자는 대상인물에 대한 정보-감정-사회적 맥지상태나 진공상태에서 사회적 관계 중립적인 또는 감정가치판단 중립적으로 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귀인 대상에 대한 정보나 범주화된 대상인물의 소속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귀인과정에 개입되는 현실적 상태에서는 행위자제 및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지않고도 귀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귀인과정에서는 Kelley모형에서 전제하고 있는 논리적·분석적·귀납적 과정 이외의 사회적·해석적·연역적 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후자의 전제를 받아들일 때 귀인모형은 사회심리적 현실에 적합한 사회심리적 귀인모형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II. 전통적 귀인이론에 대한 비판 : 사회적 귀인론자의 비판을 중심으로

귀인이론에 대한 비판을 무엇이 귀인이며 무엇이 귀인이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정의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Antaki, 1981; Buss, 1978; Fincham and Jaspars, 1980; Hamilton, 1980; Jaspars, Hewstone and Fincham, 1983; Schultz and Schleifer, 1983). 이들은 귀인이 항상 설명을 뜻하는나의 문제제기와

더불어 설명이 반드시 인과적인 것이냐의 문제를 포함하는 귀인이론에서의 설명과 인과성을 매우 제한적이며 편향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일부 비판론자들은 귀인이론이 공식적 의미에서 이론이라기 보다는 허술하게 구성된 명제체제나 개념체제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통해 이론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Semin, 1980; Harvey 1981; Hewstone, 1983).

그러나 본 논문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판을 검토해보면 먼저 Heider와 Kelley를 비롯한 귀인이론에서의 '귀인자= 과학자 가정'에 대한 비판을 들 수 있다. 즉 이들은 귀인자가 대체로 합리적인 정보처리자라는 가정을 의심하면서 귀인 과정에서 동기적이며 사회적인 영향에 의해 귀인이 부정확해질 수 있음을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Fischhoff, 1976; Hisebitt and Ross, 1980). 또한 이와 관련하여 귀인자는 개인상호작용에서 사회적 단서를 얼마만큼 충분히 분석하는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Harvey, 1981) 일관이 일상적 활동에서 귀인론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정신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Thorngate, 1976, 1979).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Langer (1978)는 의 현상으로 깊이 생각해서 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도 사실은 별 생각없이 (mindless) 한 행동인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며, Schank와 Abelson (1977)은 사람들이 천숙한 행동을 할때 학습된 보편도식에 의거하여 행동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Taylor (1981)는 사람을 '인지적 구두쇠'로 보는 입장을 귀인과정에 대한 분석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Wells (1981)는 두가지 형태의 인과추론모형을 제시한 바 사회적 선행지식으로 어떤 자극을 이해할 수 있을 때는 '사회화된 정보처리방식'을 택하지만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Kelley의 공변분석과 유사한 '원자료적 정보처리 방식'에 의존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과 관련된 세번째 비판에서는 귀인이론이 사회적 요인을 동원시키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예컨대, Apfelbaum과 Herzlich(1970-1)는 기존의 귀인연구에서 지각자의 사회적 신념을 통한 시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Jones와 Davis의 이론이 개인적인 특성을 귀인하고 동시에 행위자와 일반 타인을 구분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행위자와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특성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Kelley의 이론이 일반지각자를 통계학자로 간주하는데 대해 그리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과학적 탐색 및 추론에만 관심을 부여하는데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Moscovici와 Hewstone(1983)은 귀인이론이 개인적 수준의 이론이 아닌 사회적 수준의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신념을 고려해야하며, 이러한 신념을 연구할 때 비로소 귀인이론이 상식심리학의 본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emin(1980)과 Agar(1981)는 귀인의 문화적 배경을 강조하면서 ANOVA 모형은 문화권에 따라서 사람들의 귀인을 설정하는데 거의 부적합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Nisbett과 Ross(1980, p.30)는 자신들의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과 이론에 대한 연구가 거의 놀라울 정도로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귀인이론이 사회적 측면 또는 요인을 소홀히 한다는 또 하나의 비판적 측면은 귀인자나 행위자가 속한 집단의 속성과 관계된다. 즉, 귀인이론이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개인행동 지향적인 반면 집단간 수준에서의 귀인을 검토하는대는 소극적이었던 점이다(Deschamps and Hewstone, 1981; Hewstone and Jaspars, 1982a, 1983b). 대인간 귀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집단간 맥락에서의 귀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사회적 수준에서의 귀인적 설명은 더욱 더 희소하다는 것이다. Hewstone, Jaspars, 그리고 Laljee (1982)는 학업성적에 대한 성공/실패의 내·외집단간 귀인에서 귀인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공유한 표상에 근거하고 있고, 두 집단의 사회구조적 지위에 따라 다르며, 동시에 내집단의 사회적 정체감을 긍정적 측면

으로 제고시키는 방향 집단 이기적 오류(group-serving bias, Taylor and Doris, 1979)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Kelley를 비롯한 최근의 귀인이론들이 개인내적 또는 대인간의 귀인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집단간 귀인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데 대한 반향적 추세로 나타난 것이 Dechamps(1983), Hewstone(1981), Greenberg와 Rosenfield(1979), Tajfel과 Turner(1979), Taylor와 Jaggi(1974) 등에 의해 이루어진 사회적 귀인에 관한 연구이다.

이들 사회적 귀인의 주창론자들은 이미 앞에서는 의된 사회적 신념이나 표상과 같은 사회문화적 인지구조를 귀인모형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인에 있어서의 연역적 추론을 귀납적 추론과 더불어 가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회집단 범주의 사회적 영향과정과 개인 및 집단기능의 촉진 과정을 귀인연구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까지의 귀인연구가 지나치게 인지적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감정이나 동기들 또는 단순한 행동(simple behavior)이 아닌 의미 있는 행위(meaningful action)를 다루어야한다는 주장이 사회적 귀인론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Taylor(1981)는 인지사회심리학의 발달과 더불어 때로나 행위에 있어서의 동기적 모형이 점차로 약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실 귀인의 원이론(예컨대, Heider, 1958, p.296; Jones and Davis, 1965, p.220; Kelley, 1967, p.193)에서는 지각자의 욕구나 목적과 같은 동기적 측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귀인과정에서 동기나 감정의 측면을 사회적 귀인연구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어떤 의미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원점회귀 현상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귀인의 기능적 측면과 관련하여 Forsyth (1980), Tetlock과 Levi(1982)는 주요한 세가지 기능을 구분하였다: 통제기능, 자존심 기능, 그리고 자가 연줄 기능. 사회적 인지론자나 표상론자들도 '사회적, 기능적 충족조건이 강하게 요구될 때, 귀인에 있어서

의 정보적 결정성은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될 것이다'라는 Jaspars (1983)의 주장에 잘 공명하고 있다. Jaspars, Hewstone, Fincham (1983)은 귀인의 범주와 관련하여 귀인이론에서 제시한 범주의 실행 과정에서 사용되는 귀인의 범주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두가지 범주를 동시에 고려할 때, Kelley가 이미 지적한 통태적(configurational) 접근과 공변적 접근을 병합시키며 동시에 귀인에서의 동기적 및 기능적 요인을 정보적 요인과 결합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Fergus는 사회적 인지에서의 '사회적 속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귀인이론을 정보처리이론의 연장으로 축소개념화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는 귀인이론을 감성, 정서 그리고 규범적 요소를 포함하는 '사회적 자극'의 영역으로 넓혀갈 것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이들은 '사회심리학에서 사회와 관련된 정보처리자로서의 개인이 자신에게 제시된 사회적 자극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연구보다 동기화된 사회규범적 행동을 이해하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1981, pp.4-5)'고 하였다.

사회심리학에서 인지적 접근의 시조인 Levin은 그의 장이론에서 이미 행위를 동기화된, 목표성취적 문제로 전제하면서 주관적 인지 속에 내재된 유인자, 가치지향성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인지와 동기를 결합시키는 Levin의 전통을 이어받는 Festinger의 인지불균형이론에서도 특정한 불균형 상태의 인지가 동기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최근 유럽에서 인지사회심리학적 접근의 하나로 발전된 Moscovici 등의 사회적 표상이론에서는 순수한 인지와 동기적 또는 가치함유적 인지를 구별하여 구분함이 없이 인지의 기능을 확장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Moscovici에 따르면 사회적 표상을 가치, 아이디어, 그리고 실제 행동의 체계를 뜻하는 것으로 이러한 표상이 물질적인 사회적인 세계에 개입인의 대응방식을 결정짓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좀 더 상세적인 표현을 빌면, 우리의 지식은 가치, 동기, 및 사회적 규범에 의해 채색된다.

지금까지 Heider, Jones와 Davis, 그리고 Kelley로 이어지는 전통적 귀인이론에 대한 비판을 사회적 귀인이론자의 입장에서 요약하게 요약하였다. 이들 비판을 분류해보면 첫째 귀인자의 일상적 인과추론양식이 과학적 인과추론양식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는 전통적 귀인이론에서 귀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등한시한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귀인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념, 귀인자가 관여된 사회적 집단, 귀인자 자신의 동기·가치·규범적 요인 등이 전통적 귀인이론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판을 토대로 하여 전통적 귀인이론에 대비되는 입장의 사회적 귀인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 두 입장의 귀인이론은 현재 공격과 방어에 대적적 양상을 보이면서 동시에 상호보완적 가설과 이론을 구축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입장이 결과적으로는 보완적이라 하더라도 실제 이들이 가정하고 있는 전제와 연구의 결과는 적어도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상호보완적이다.

예전대 전통적 귀인이론에서는 인간을 합리적·귀납적·개인중심적·인지중심적 정보처리자로 가정한 반면, 사회적 귀인 이론에서는 인간을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으며, 추론의 과정도 귀납적일 뿐 아니라 연역적일 수도 있고, 개인중심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고, 순수한 인지중심적 인과추론뿐 아니라 감정·태도·관여적 인과추론을 할 수 있다고 상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이 두가지 귀인 모형을 서로 다른 가정에 기초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두 분야의 연구를 고찰해보면 행동주의자들이 인지의 세계를 암묵상자라고 비유한 것에 걸맞을 정도로 다양한 단편적 비판과 가정에 근거한 지식의 혼미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귀인이론이 문자 그대로 일반인의 인과추론적 설명방식을 상식심리학의 수준에서 기술하고 이해하는 것이라면, 귀인이론은 보다 조리정연한 상식적 지식체제로 수렴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만일 전통

적 귀인이론과 사회적 이론이 동시에 일반인의 인과 추론 행동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이라면 또한 지금까지 산출된 연구결과에서처럼 두 이론모형이 모두 제각기 지지적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두 이론을 연결짓는 또는 포괄하는 개념체제나 설명체제가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어느 경우에 전자의 모형이 적합하고 동시에 다른 모형이 부적합한가를 설명 또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만일 위의 명제가 타당하다면 왜 그러한 변별적 적합성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논리적·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예측의 준거체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두 이론은 항상 배타적 관계를 모면하기 어렵게 되며 결과적으로 편파적 자기정당화라는 귀절을 받게 한다. 본 논문은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두었다. 즉 이 두 모형은 각기 이론체제내적 일관성과 응집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기초한 지지를 획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현재의 이론적 발전단계에서 어느 한 모형을 다른 모형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중피의 비판적 시각보다는 두 모형을 동시에 수용하고 종합하는 입장을 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두 이론 모형이 변별적으로 타당화될 수 있는 조건을 밝혀내고, 여기서 더 나아가 두 모형을 종합할 수 있는 통합적 귀인모형을 탐색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I. 문제의 제기

한 개인에게 있어서 타인 또는 집단은 자연과학적 이해의 대상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를 사회적 인지과정과 관련지워 보면 인간의 인지과정이 자연과학적이라 함은 Heider가 가정한 바와 같은 과학자로서의 지각자를 뜻하며, 반면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곧 과학적 이해보다 사회적 요구특성에 대한 적

응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상식적 지각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Moscovici와 Hewstone(1983)은 사회적 표상과 사회적 설명을 논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두 가지 측면을 블란시의 철학자인 Bergson의 문구를 빌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일반인의 상식적 설명은 모순적인 양 측면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 하나는 실증과학이나 논리학에서와 같은 이성적 판단에 기초한 설명이며, 다른 하나는 선입견, 미신, 일상적 착각에 기초한 비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설명으로 전자의 인간상을 우매한 인간상, 후자의 인간상을 합리적 인간상으로 비유하였다. 더 나아가 이들은 과학과 상식을 논하면서 과학적 인식론과 상식적 인식론을 구분하고 일반인들이 이 두 가지 인식유형을 경우에 따라 호환적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를 지식을 얻고 세상을 알게 되는 과정으로 확대하면서 과학적 인식과 일상적 인식을 표준적 대 비표준적, 논리 대 신념, 문화적 대 원시적, 논리적 대 전논리적, 비판적 대 자동적 사고로 비유하여 특징짓고 있다. 이들은 일반인이 과학적 사고와 일상적 사고를 동시에 구사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귀인과 관련하여 귀인의 대상이 되는 타인 또는 집단은 지각자와 무관한 객관화된 대상이 될 수 있는 한편 지각자와 사회적으로 유관한 관계상학적 대상일 수도 있다. Moscovici(1981)는 두 가지 유형의 귀인을 구분한 바 그 하나는 '당사자귀인'이며, 다른 하나는 '제삼자귀인'이다. 여기서 당사자귀인은 객관적인 사상의 배후에 있는 주관적 질서에 대한 탐색과정에서 생성되는 해석적 귀인(imputation)을 말하며, 제삼자귀인을 주관적 사상의 배후에 있는 객관적 질서의 탐색에서 생성되는 귀인(attribution)의 말한다. 즉 해석적 귀인은 가시적 행동에 대한 숨은 동기를 재구성함으로써 설명하는 방식이라면, 귀인은 가시적 행동을 비가시적 요인에 의해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 두가지 유형은 특정한 패턴의 조합법칙에 따라 개인내에서 순환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논의된 과학적 인식론과 상식적 인식론, 그리고 제삼자귀인과 당사자귀인은 전문심리학과 상식심리학 간에 분령을 이루는 결정적 쟁점이 된다.

Kant의 파라다임에 바탕을 둔 실험심리학에서는 과학적 인식론과 제삼자적 시각을 강조한 반면 Hume의 파라다임에 기초하여 상식심리학을 추구하는 귀인이론에서는 상식적 인식론과 당사자적 시각을 더욱 강조하는 기조를 띄고 있다. 귀인이론에서 다루는 자극은 물리적 자극이 아닌 사회적 자극이며 귀인이론에서의 자극에 대한 반응은 일반인의 인식론과 사회적 인지체계에 기초한 일상적 반응이라는 경험적·현상적 이론이다. 이미 Heider의 'naive psychology'라는 표현에서 암시하듯이 귀인이론은 과학자의 귀인과정이 아닌 일반인의 귀인과정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귀인이론의 연구도 사회적 지각 및 사회적 인지의 주제맥락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사회적 귀인'을 강조하는 귀인 이론가들이 지적하는 비판은 귀인이론의 목적과 관련되었다기보다는 귀인모형과 관련된 것이다. 즉 귀인모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Kelley의 모형이 행위와 행위사태에 대한 객관적 정보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귀인자의 주관적 인지구조 및 동기 및 귀인대상인물 및 소속집단의 사회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귀인의 과정과 관련하여 Kelley의 모형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자연사태분석적 논리를 일반인이 일상생활의 귀인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Kelley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귀인모형이 사회적 귀인의 측면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비판이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우선 Kelley는 자신의 모형을 어디까지나 귀인의 전형적인 모형으로 내세운 것일 뿐 모든 경우 모형에 포함된 모든 차원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주어진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귀인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인하며 동시에 그러한 정보결핍상황에서의

귀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Kelley(1972, 1973, 1980)는 ANOVA모형을 이상적 표준모형으로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과패마를 사용하여 귀인한다는 설명과 더불어 실제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귀인과정에서 귀인자의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표상과 같은 측면을 무시했다고 사회적 귀인이론가들은 비판하나, Kelley의 모형에서 귀인자 자신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선언한 바도 없으며 이러한 측면이 귀인과정에 개입되어 작용한 총체적 결과만을 문제삼기때문에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표상과 같은 지각자의 특성을 독시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Kelley의 모형에 따라 측정된 귀인의 결과는 지각자의 특성에 따른 영향뿐 아니라 지각대상인물의 특성과 귀인자와 대상인물간의 상호관계에 따른 영향까지도 작용한 집합적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Kelley모형이 이처럼 사회적 귀인이론자의 비판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과 실제적 연구의 뒷받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귀인이론자의 주장이 그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Kelley의 전통적 귀인모형의 구조적 제한점에서 비롯된다. 이는 그의 귀인모형의 전제를 분석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그의 모형은 다음과 같은 암묵적 또는 명시적 관심과 전제 위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그의 모형은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지각자가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타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분석을 한다는데 주관심을 두었다. 반면 집단내의 지각자나 지각대상인물에는 관심의 초점을 두고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개인모형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려하고 있다.

둘째, 그의 모형은 지각자와 대상인물간에 누적된 사회적 관계보다는 제삼자로서의 지각자가 자신과 무관한 특정인물의 행위를 독립적으로 관찰할 때 일어나는 원인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세째, 그의 모형은 지각자의 감정, 동기, 고정관념, 사회적 표상과 같이 귀인에 영향미칠 수 있는 특성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넷째, 그의 모형에서 인과추론과정은 개인이 과학적 분석모형을 따른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하면 귀인시 귀인모형에 포함된 모든 차원의 모든 가능정보를 활용하며, 귀인의 추론과정에서도 객관적·형식은리적 모형 즉 Hobbes적 모형을 따른다는 가정이다.

다섯째, 그의 모형은 대물지각의 원리와 대인지각적 원리의 차이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인지각도 대물지각도 대물지각의 원리에 준한다는 전제를 묵시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인지각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이성을 오류나 편파로 간주하고 있다. 예컨대, 현출효과, 방어적 지각 성향, 대인·대집단채다, 기초정보의 과소사용, 회색효과, 관계성 착각, 편의성 편파, 초두 및 취신효과 등과 같이 대인지각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적 특징들이 Kelley의 모형에서는 명시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대인지각의 오염 내지 편파 정도로 다루고 있다.

여섯째, 그의 모형에서는 행위를 보고 개인 또는 환경으로 귀인하는 '선 행위판찰' 후 '귀인'의 순서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일상의 인과추론과정에서는 그 순서가 명확히 구분지워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즉 대상인물에 대한 특성과 행위가 동시에 작지워지는 동시귀인이 있을 수 있는가하면, 성격에서부터 행동의 원인지각으로 역순의 귀인도 가능하며 실재한다.

이상과 같은 Kelley 모형의 특성을 지나친 단정 위험을 무릅쓰고 특징짓는다면 다음과 같다. Kelley의 모형에서는 과학적 추론에 익숙한 개인이 정보가 전혀 없는 타인을 만나 그의 행위를 보고난 후에 과학적인 대물추론형태의 원인추론과정을 거쳐 객관적 원인을 이끌어낸다는 기본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Kelley 모형에 대한 검증이나 이 모형에서 연역한 가설 또는 실재의 연구 등에서 상정한 전제와 상반되거나 그것을 성립시키지 않는 전제가 도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형의 기본 전제에 부적합하거나 상반되는 연구와 연구결과도 지금까지의 Kelley 모형의 연장선 상에서 해석하고 조망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보인다. 즉 Kelley 모형의 추종자들은 이러한 연구를 Kelley모형의 확대 내지 정교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키가 작은 사람에 맞는 기성복을 키가 큰 사람에게 억지로 입히려는 억지순환식의 노력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키가 큰 사람에게 큰 옷을 새로 지어 입히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는 비유를 받아 들인다면, Kelley의 이론적 전제에 적합하지 않은 연구와 연구결과는 새로운 이론이나 모형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Kelley 모형에서는 Kelley의 예측에 부합되지 않는 대부분의 결과를 오류나 편파와 같은 비정상성을 암시하는 개념범주에 억지로 포함 시키고 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비정상성의 범주에 속하는 가설, 연구, 및 연구결과가 그 수에서 '예외'의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많거나 그 '예외'가 보통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예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정보라고 할 때, '예외'라는 범주는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내'를 설명하는 이론 자체에 회의를 갖게 해줄 수도 있다. 사실 사회적 귀인론자의 주장은 '예외'만을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 '예내'를 설명하는 Kelley의 모형자체를 거부하려는 동기까지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예내'와 '예외'간의 갈등은 각각의 연구와 주장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이유와 논리 그리고 증거를 갖고 있어 어느 쪽만이 옳다고 판정하기는 어렵다. 즉 양쪽 다 어느 정도의 자료와 이론적 뒷받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이제부터는 문제의 초점을 어떤 경우에 '예외'가 옳고, 또 어떤 경우에 '예내'가 옳은가를 밝히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예내'와 '예외'의 구분방식보다는 이 둘을 동등한 입장으로 조명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즉 상호의 입장

모두를 수용할 때 관심의 초점은 어느 쪽이 더 옳으나 아니라 어떤 점에서 두 입장이 상이하며, 어떤 경우에 어떠한 입장의 이론이 더 적합한가를 구분하는 기준 내지 과정을 밝히는 일에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비판과 방어에 초점을 둔 반면 사회적 귀인이론의 이론적 배경을 전통적 모형과 동등한 수준에서 이론적으로 대비시켜 평행적인 모형으로 격상시키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적 귀인모형으로써 전통적 귀인모형을 대치시키거나 비판하는 입장을 피하고자 한다. 이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귀인모형을 전통적 귀인모형과 평행적 위치에 있는 귀인모형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구성하고, 두 모형이 선택적으로 또는 병합적으로 작용되는 사례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인사례의 분석모형을 제시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두개의 모형이 기초하고 있는 전제를 가각 지어서 대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IV. 통합적 귀인모형의 탐색을 위한 기본전제

하나의 이론이 제안된 후 그 발전과 분화의 과정에서 그 이론이 기초한 기본전제와 목적으로부터 이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귀인이론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Heider가 귀인이론을 맨 먼저 제안했을 당시의 기본목적은 '질저리 사람들의 naive psychology'를 있는 그대로, 또는 작용하는 형태 그대로 기술하고 이해하는 데 있었다. 더 나아가 그는 'naive'라는 말을 'professional'이라는 말과 대비시켜 종래의 행동실험심리학적 파라다임으로부터의 일탈을 선언하였다. 우선, 자극 반응 심리학의 가정 중 하나인 환경자극에 대한 수동적 반응자로서의 인간이 아닌 주관적 구성자로서의 능동적 인간을 가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간의 주관적 인지의 구성과 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인지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논리적 과학적 사고보다는 현상적 세계와 현상적 인과추론에 주안점을 두었

으며, 궁극적으로 일반인의 인과추론의 양식에 대한 연구를 통한 상식심리학을 구축하고자하였다.

그러면 상식심리학에 대한 Heider의 언급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상식심리학은 타인에 대한 행동을 방향지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타인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성하게된다. 그리고 타인의 행위를 해석하고 그들이 특정한 환경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를 예측한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보통 분명하게 체계화되어있지는 않지만 실제의 생활에서 적당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Heider, 1958 p.5).

위의 인용에서 우리는 몇가지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반인(과학자가 아닌)이 타인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성한다는 점, 둘째, 일반인이 타인의 행위를 해석한다는 점, 셋째, 일반인의 이러한 아이디어는 체계화되어있지 않다는 점, 넷째, 일반인의 이러한 아이디어는 실제생활에서 적당하게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Heider의 상식심리학이 기초하고 있는 중요한 가정을 위의 네 가지로 요약해 볼 때, 현재의 귀인이론의 발달이 이러한 가정에서 상당히 괴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번째 가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상황에 대한 아이디어'는 무엇을 의미하고 포함하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Heider는 아이디어라는 말을 단순히 귀인의 뜻으로만 사용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행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일반인의 상식적 신념(lay beliefs)을 가정하였으며 더불어 이러한 신념을 행위자와 기대와 행동을 설명하는데 고려해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Heider, 1958, p.5).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귀인은 상식적 신념의 한 측면 내지 부분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eider가 제창한 상식심리학은 일반인의 사회적 신념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상태에서 귀인의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론과 연구를 전개시켜왔다. 이 점에 대해 사회적 귀인이론자와 사회적 포상론자들은 Kelley를 중심으로한 귀인이론에서 지각자의 사회적

신념이나 일반인의 사회적 표상을 동원해 해왔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이를 귀인과정의 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 가정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해석에서 과학자나 심리학자의 해석이 아닌 일반인의 해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점이 바로 전문심리학과 상식심리학의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Heider 자신은 일반인의 해석이 분명히 어떠한 것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과학적 입장에서의 해석과는 다른 형태의 해석임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Heider의 귀인이론은 Kelley로 이어지면서 ANOVA 모형을 기본적 인과분석 틀로 채택하기까지 이르는 바 이는 마치 일반인이 통계적 인과추론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이에 대해 Kelley 자신도 ANOVA 모형에 기초를 둔 공변모형(covariation model)과 더불어 통태적 위상모형(configuration model)을 제시하면서 일반인의 추론이 반드시 귀납적 통계분석 모형에만 의존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elley 모형에 따른 귀인연구는 귀인이론의 발달을 주도하면서 공변모형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elley의 모형이 Heider가 말한 현상적 인과추론 양식인 'lay epistemology'에 충실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인과추론 양식인 'formal epistemology'에 더 가깝다는 비판이 있다. 귀인이 반드시 귀납적 과정이 아니며 통계적 분석이 아닐 수도 있음을 Moscovici는 다음과 같이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기억이 논리를 앞서며, 과거가 현재보다 우선하며, 반응이 자극을 압도하며, 이미지가 현실을 제압한다'(1981, p.189).

세번째로 일반인의 아이디어가 반드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은 현상적 인지의 체계와 주관적 해석 및 인과추론의 양식이 과학적 이론에서처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elley의 귀인이론 모형이나 이에 비롯된 귀인연구에서는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분석 카테고리들을 사용하고, 인과추

론과정도 형식논리의 모형에 유사한 선형적(linear)이며 기계적인 인과관계들을 분석의 틀로 적용시키고 있어, 일반인의 상식심리학이라기보다는 과학자의 상식심리학을 방불케하는 인상을 주고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 귀인이론의 선형적 인과성가정에 대한 비판, 인지심리학에서 발달한 정보처리모형을 귀인분석에 적용 하는데 대한 비판, Bayes의 합리적 의사결정모형을 귀인분석에 적용하는데 대한 비판, 귀인이론에서 사용하는 카테고리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카테고리나 다르다는 비판, 귀납논리만을 적용하는데 대한 비판, 개인차원의 인과분석에만 치중하는데 대한 비판, 현상학적 인과체현을 무시하는데 대한 비판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Heider의 네번째 가정은 귀인이 개인의 사회적 적응에 기능적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귀인이론의 초기 제안자인 Heider(1958, p.296)는 물론 Jones와 Davis(1965, p.220), 그리고 Kelley(1967, p.193)까지도 지각자의 욕구나 목적과 같은 동기적 측면을 귀인이론에서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귀인이론모형이나 연구의 추세는 인지적 정보처리과정모형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 반면, 동기나 기능적 측면은 거의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러한 시각에 대한 간접적 증거로는 귀인과정에서 자기 고양현상(self-enhancing phenomena)과 같은 동기나 감정판여적 귀인을 오히려 편파로 간주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귀인이 적응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귀인과정에 사회성, 문화성, 대인관계등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귀인이론은 비사회적이며, 탈문화적이고, 개인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Jaspars(1983)를 비롯한 사회적 귀인론자들은 귀인의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및 기능적 요인을 고려할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귀인적 설명이 갖는 사회적 및 심리적 기능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Heider가 본래 의도했던 귀인이론에 대한 틀과 가정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귀인이론이 어떻

게 본래의 형태에서 이탈되어 왔는가를 검토하였다. 물론, 이러한 검토는 이미 앞부분의 전통적 귀인이론에 대한 비판(2)에서 논의된 바 있어, 여기서는 자세한 논의를 피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탐색하게될 귀인이론의 통합 모형에 대한 기본전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귀인이론은 사회적 인지 및 사회적 포상이론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 귀인은 귀인자의 인지적 공백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귀인자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한 아이디어, 이론, 포상, 우리 등을 포함하는 지식에 기초하여 귀인한다. 이러한 지식은 복잡한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채득되며 따라서 불가피하게 가치적, 동기적, 규범적 성격과 문화적 배경을 함유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 인지 및 사회적 포상은 개인내적 심리과정일 뿐만 아니라 개인간, 집단간 사회문화적 심리과정이기도 하며 동시에 인지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 동기적, 규범적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귀인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 인지나 사회적 포상을 다룸에 있어서는 지각자와 지각 대상인물의 개인적 특성은 물론 이들이 속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개인특성의 귀인모형 뿐만 아니라 집단중심, 사회문화 중심의 귀인모형도 병행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예컨대, 귀인이론이 고립된 개인이 폭방에서 타인과 무관한 관계속에서 이루는 비사회적 귀인모형으로부터 탈피하여 사회적으로 연관된 사회상황에서의 사회적 귀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사회적 신념, 사회적 포상, 사회적 관계 등을 기초로 한 설명방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순수한 인지중심적 귀인이론을 탈피하여 사회적 귀인이론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상황과 개인간 또는 집단간 관계에서 발원되는 인지적·동기적·규범적 귀인모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나. 귀인이론이 일반인의 인과추론 지향적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이성적, 논리적, 귀

납적, 인지적, 인과추론모형 뿐만 아니라 현상적, 주관적, 직관적, 연역적, 동기적, 인과추론모형을 동시에 반영해야 한다 : 귀인이론이 지향하는 상식심리학의 기본적 전제는 1)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재관적 사실과 현상보다는 사실과 현실의 지각 및 해석이 더, 또는 똑같이 중요하다는 점과, 2) 이러한 지각과 해석은 과학적 인식론에 기초한 '전문심리학'의 접근방식과 다르다는 가정이다. 전제 1)과 관련하여 Thomas(1928, 1966, p.522)는 '사람이 상황을 현실로 규정하면 그 상황은 결과적으로 현실로 둔갑된다'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Levin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여 장이론을 구성하였다. 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動因)은 재관적으로 발생하는 외적인 현실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에 대해 주관적으로 지각된, 해석된 현실이라하는 것이다. 그러한 그의 가정은 위에서 제시한 전제 2) 즉 일반인의 해석과 지각이 재관적 현실에 충실한 과학적 인식론과 다르다는 명제를 내재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Levin의 장이론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관적이며 인지적인 지각과 해석이 동기적, 목표지향적 유인가를 함유 내지 수반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귀인이론에서 관심을 두는 인지적 해석이 순수한 인지적 특성만을 지니는가 아니면 동기적·규범적·감정적 요소를 수반하는 인지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적 귀인이론자들이 전통적 Kelley모형에 대한 비판에서 거론해 왔으며, 이들의 주장은 Kelley모형의 이론이 지나치게 인지일원도적이라고 일관하고 있다. 여기서 또한 Levin의 이론이나 Heider의 귀인이론이 공통히 주관적이나 Heider의 귀인이론이 공통히 주관적 인지와 주관적 해석을 이론의 기본개념으로, 동시에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있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인식론과 현상학적 접근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접합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Levin의 전통을 이어받은 인지불균형이론도 불균형상태의 인지구조속에서는 감정적 및 동기적 요소가 인지구조에 내재적으로 관여된다는 명제에서 출

발하고 있다. 일반인의 인지가 주관적, 현상학적, 감정-동기관여적 특성을 구유한다는 점은 곧 일반인의 추리가 과학적, 논리적, 이성적, 가설검증적 귀납적 추론과정보다는 현상적, 직관적, 주관적, 동기적, 연역적 추론과정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소위 개인중심의 귀인모형이라는 Kelley의 이론에 기초한 연구나 이를 비판하는 사회적 귀인모형에 기초한 연구에서 공히 자위적 편파(self-serving bias) 현상이 자주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은 적어도 귀인의 과정이 반드시 과학적 추론과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Harvey, Town & Yarkin(1981)은 기본적 귀인 오류를 포함한 귀인에 있어서의 '오류' 문제를 과학적 대상식적 인식론의 차원에서 논하고 있다. 이들은 오류(error), 편파(bias)란 말이 정확성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설정된 근거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과학적 추론이 아닌 상식적 추론에 기초한 귀인이론에서는 정확성의 기준을 과학에서처럼 통일된 단일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합한 명명(命名)이라고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이들은 Kruglanski와 Ajzen(1983)이 주장한 바와 같이 오류 또는 편파라는 용어보다는 주관적 경향성(subjective tendency) 또는 여러 대안중 특정한 대안에 대한 선호성(preference)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부연하고 있다.

인간의 인지, 추론, 그리고 사고가 이성적인가 아니면 비 이성적인가의 문제에 대해 Moscovici와 Hewstone은 이성적이며 동시에 비이성적이라고, 과학적이며 동시에 상식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성적이며 과학적인 사고의 유형을 반성적(reflective) 사고 유형으로, 비이성적이며 상식적인 사고 유형을 자연적(natural) 사고 유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Moscovici는 다시 주관과 객관의 관계를 Kant의 인과론과 Hume의 인과론으로 대비시키면서, 인과성(cause and effect)의 문제는 Kant의 인과모형으로 이는

Kelley의 귀인이론에 가까우며, 수단과 목표(means-and-ends links) 관계의 문제는 Hume의 인과모형으로 목적성 귀여(imputation)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귀인에 있어서 Kelley의 모형은 '그가 왜 그것을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며, Hume적인 귀인모형은 '무슨 목적으로 그가 그것을 하나?'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Moscovici의 귀인에 대한 접근방식은 증립적, 과학자적 입장에서 행위자의 행위 원인을 분석하는 제삼자적 귀인, 행위 당사자의 입장에서 행위의 이유를 설명하는 당사자적 귀인의 두가지 모형을 설정하고 있다.

끝으로 귀인과정과 관련하여 전통적 귀인모형에서는 귀납적 추론모형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으나, 일상적 귀인과정에서는 그 반대과정인 연역적 추론형태의 귀인도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Rosch와 Lloyd(1978)는 판단이 선행하고 귀인이 후행되는 현상이 일상적 귀인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Moscovici의 비유를 빌면, 일상적 귀인에서는 재판보다 판결이 선행하는 역순적 인과추론 양식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귀인적 사고의 과정은 본 덩제 「나」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과학적 추론모형과 상식적 추론모형이 자연스럽게 교차, 혼용되는 복합적 모형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귀인은 본질적으로 불가피하게 귀인의 사회적 적합성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적응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적응적 기능의 차원은 개인이 처한 시간적, 상황적 맥락에 따라 개인중심적 귀인과 사회-집단 중심적 귀인과 같은 상이한 표현형으로 표출되고 설명되며 기술될 수 있다: 사회적 귀인론자들은 Kelley를 중심으로한 전통적 귀인이론에서 귀인의 사회적이며 기능적인 측면을 무시해 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통적 귀인론자들은 자신들의 귀인이론이 비사회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사회적 기능을 동한시 하지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Kuhn(1962)의 주장은 이 문제에 대한 좋은 사고의 출발점을 제시해 준다. Kuhn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지식은 사회적 산물이다. 일반인이 가진 이론이나 표상, 아이디어는 물론 공식적인 과학까지도 사회적 산물을 이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Head(1934)는 우리의 모든 인지는 사회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Thomas(1928)와 Weber(1947)는 우리의 사회생활은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한 표상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지과정이 귀인에 관여되는 한, 과학적 논리나 지식에 따른 귀인이건, 상식적 논리나 지식에 근거한 귀인이건 사회적 통용성이 클수록 귀인의 사회적 적응기능은 그만큼 더 커진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통용성이 적거나 없을 때에도 귀인이 개인의 사회적 적응기능을 가질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규범적 적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례 또는 예외라고 볼 수 있다. 앞서 공식적 과학도 사회적 산물이며, 모든 인지가 사회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인지나 과학이 사회구성원 간의 공유성을 전제로 한 것이며, 동시에 공유성이 결여될 때에 그것이 기능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 귀인이론도 사회적 공유성을 가질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사회적 적응성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Kelley의 귀인이론이 규범적 귀인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사회적이며, 사회적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타인의 의도적 행동에 대한 추론과 관련하여 현상학적 접근론자인 Schultz(1970)는 접합적 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문제를 거론한 바, 이것을 사회적 생활의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접합적 주관성은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예측할 수 있는 주관적 생활세계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타인의 주관적인 생활세계에 대한 현상적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Schultz는 Heider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행위의 의도성을 설명하는데 관심을 두었으나, 행위자를 보

는 시각은 전통적 귀인이론과 다르다. 즉, 전통적 귀인이론에서는 행위자를 상식적 과학자로 표상하며, 그들이 타인의 주관적 세계를 파악하는데 있어 논리와 과학의 법칙을 사용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Schultz는 행위의 객관적 수준과 주관적 수준 간에 반드시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연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인과추론의 과정을 전통적인 귀인이론의 경우와는 달리 현상학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 귀인은 그것이 형식은리적 과정이건, 현상적 과정이건 사회적 공유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회적 공유성 자체는 개인의 사회적 적응기능을 내재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귀인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하여 Heider, Jones와 Davis, Kelley도 귀인자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를 동기적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귀인의 주요한 사회적 기능을 Forsyth(1980), Telleck와 Levi(1982)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통제기능, 자존기능, 자기연결 기능. 물론 귀인의 기능을 어떻게 구분하며 체계화하는가는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나, 이들의 분류에서 몇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다. 먼저 통제기능과 관련하여 이들은 Kelley를 비롯한 전통적 귀인이론에서의 귀인과정에 물리적 및 사회적 세계에 대한 통제 동기가 관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존기능과 관련하여 이들은 성공 및 실패에 대한 귀인에 있어서의 자기증실성을 예로 들고 있으며, 끝으로 자기연결기능과 관련하여 자기고양적 귀인과 자기은폐적 귀인(Arkin et al., 1980; Bradley, 1978)의 예를 들고 있다.

개인적 차원보다는 넓은 사회적 차원에서 Mead(1934)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를 논하면서 개인적 현상과 사회적 현상이 구분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개인은 사회적이며 사회는 개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창조되는 체계로 보고 있다. 상징을 통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여기서의 상징을 사회적 인지의 한 구성요소로 볼 때 사회적 인지는 이미 사회로부터 고립된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동

시에 개인으로부터 분리된 사회의 독립물도 아님을 시사받을 수 있다.

귀인이 사회적 인지와 사회적 표상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귀인의 과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사회적인 현상도 아니며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현상도 아닌 개인-사회연계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통적 귀인이론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통합적 귀인모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통합적 모형의 설정에 앞서 고려해야 할 기본전제를 구성해 보았다. 다음에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전통적 귀인이론과 사회적 귀인이론을 동등한 위치에서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탐색하고, 이 틀내에서 지금까지 귀인이론과 관련된 제반 이론적 문제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V. 통합적 귀인모형의 탐색

앞서의 전제 「다」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귀인은 그저 무의미, 무목적, 무기능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동기적, 기능적, 적응적 배경위에서 작동되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물리적 자극이 아닌 사회적 자극에 대한 사회심리적 과정이 관련된 귀인에 있어서는 비록 현재적으로 특정한 목적과 동기가 분명치 않거나 명시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동화된 기능(functional autonomy) 또는 사회화된 기능(socialized function)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귀인이 일어나는 보편적 상황에서 귀인은 위에서 말한 소극적 기능의 차원을 넘어 보다 직접적이며 실제적인 기능과 관련된다 볼 수 있다. 귀인이 이처럼 적응기능을 갖는다고 할 때, 귀인은 무작위적인, 우발적 현상이라고보다는 작위적인, 결과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작위적이라 함은 귀인자가 비록 귀인의 목적과 동기에 대해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개인내적으로 귀인이 일어난 동기나 상태가 발기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일어난 개인내적 정신활동임을 뜻한다.

귀인에 관여되는 동기와 관련하여 Forsyth(1980), Tetlock과 Levi(1982)는 통제기능, 자존기능, 자기연줄기능등의 세가지를 들고있다. 물론 동기나 기능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모든 동기를 다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적 동기에 기초한 귀인을 위의 분류체제에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의 분류체제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동기나 기능을 알아보는 데 적합하지도 않다. 그러나 불완전할지도 모를 이러한 기능분류체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우선 귀인에 있어서의 동기나 기능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적 목록때문이며, 동시에 이러한 분류체제가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귀인의 동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때문이다. 현재의 심리학의 발달수준에서 태도나 귀인과 같은 사회심리적 현상을 기능적 측면에서 체계적이며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Katz나 Smith등의 기능이론이 태도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볼 때, 귀인의 경우도 동일한 정당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귀인의 동기와 기능을 논하는 이유는 귀인 상황에서 발기된 동기 또는 기능의 특성과 성질에 따라 귀인의 방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은 Moscovici의 사회적 표상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사회적 표상을 형성하는가? 사회적 표상을 형성하는데 관여되는 동기가 사회적 표상의 인지적 특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 인용에서 Moscovici는 관여되는 동기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적 표상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귀인의 동기 및 기능과 귀인과정 사이에 매개적 과정을 가정하는 바, 이러한 매개적 과정은 일반심리학에서 발견되어온 반응세트(response set)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여기서 귀인의 동기를 귀인과정에 매개하는 요인을 유발귀인세트(precipitating attribution)라고 명명한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서 귀인할 때 어떠한 귀인동기와 기능

이 활성화되며, 동시에 어떠한 귀인 유발셋트가 작동되는냐는 특정한 상황이 특정한 개인에게 갖는 주관적 의미와 현상적 경험에 의해 결정되거나 영향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도식화(그림1)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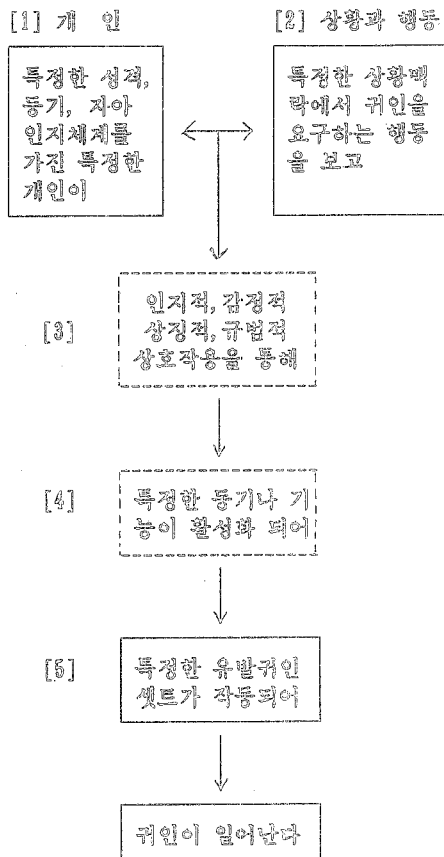


그림 1. 귀인동기와 귀인셋트의 유발과정 모형

위의 모형에서 어떠한 귀인동기나 귀인유발셋트가 유발되는냐의 문제는 어떠한 동기나 귀인셋트가 유발될 수 있는냐의 문제를 검토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Kelley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귀인모형과 이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사회적 귀인모형의 이론적 배경을 비교 검토해 보는 일은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된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전통적 귀인

모형은 과학적 인과추론 아류적 모형으로 객관적 이해와 설명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순수인지적 이해 및 설명을 주요하게 다루는 모형이다. 반면 사회적 귀인이론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특성 및 요구를 인지 과정에 포함시키며, 개인의 내적 동기와 감정체제가 귀인에 관여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는 순수인지적 귀인을 후자는 감정집단관계적 귀인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인에 관여되는 동기도 다를 수 있다고 하겠다. 전자의 경우 중요하게 관여되는 동기를 통제적 동기라 한다면, 후자의 경우 자존 및 자기언을 동기가 더 중요하게 개입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동기분류 방법을 따르는 대신 또 다른 분류체계를 적용할 수도 있는바, 전자의 경우 동기나 성격 과정이 되도록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자아-감정 비관계적 유발귀인셋트를, 후자의 경우 동기나 성격과정이 관여되었다는 점에서 자아-감정 관계적 유발귀인셋트가 현저하게 작동되는 귀인상황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귀인동기나 유발귀인셋트를 변별하는 분류차원과 범주는 이 밖에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의 귀인연구에서는 이러한 분류체계를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개발하고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의미있고 체계적이며 현상을 설명하는데 보다 직접적이며 실체적인 분류체계를 개발하는 일 자체가 귀인이론의 발전에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의식적 동기과정 대 무의식적 동기과정, Piaget의 체제에 따른 동화(assimilation)적 동기과정 대 수용(accommodation)적 동기과정등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은 귀인의 유형과 내용을 설명하는데 주요하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단 유발귀인셋트가 작동되어 귀인이 일어날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또다른 측면은 귀인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지적 저장목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유발된 귀인셋트에 따라 활성화되고 관여되는 인지의 내용은 귀인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지의 내용에 따라 다를수도 있다. 예컨대 두 개인에 있어 동

일한 자존귀인셋트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 어떤 인지구조와 사회적 표상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귀인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인지론자나 Moscovici를 비롯한 사회적 표상론자들은 귀인의 내용과 결과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귀인자가 가지고있는 사회적 인지의 구조와 표상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표상과 유발귀인셋트 간의 관계는 선택적 지각과 선택적 인출의 개념을 빌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정한 상황에서의 특정한 행동을 보고 귀인할 때 지각자에 있어 어떤 동기가 현저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채취 입수되는 정보의 성격이 달라질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해석하고 상징화하는 과정에서 인출되는 인지왜마나 인지적 표상도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인출되는 인지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중요한 측면은 귀인당시 귀인자가 어떠한 귀인관련 인지특성을 가지고 있었느냐의 측면이다. 떨어져는 사과를 보았더라도 만유인력의 법칙을 인지구조속에 가지고 있지않은 사람은 이를 중력의 작용으로 귀인시킬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가정환경이 학업성적과 유관하다는 인지구조를 갖지 못한 사람은 가정환경적 요인을 학업성적 귀인에 고려할 수가 없으며, 조상의 분노에 의해 정신병에 걸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정신과 의사는 정신병적 행동을 결코 조상의 분노로 귀인시킬 수 없다. 따라서 귀인의 결과를 설명하고 예언하는데 있어 유발귀인셋트와 병행하여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은 귀인유관적 인지특성 체계이다. 전자를 귀인의 동기적 선행조건이라 한다면, 후자를 귀인의 인지적 구성조건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귀인에 관여되는 인지적 특성과 목록에 대해서 Moscovici는 매우 설득적인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나는 미국의 학자들과는 반대의 귀인순서를 주장하고 싶다. 즉 귀인의 성격은 사회구성원이 지난 표상에 따라 결정된다. 귀인에서 외적 정보는 먼저 특정한 표상적 요소를 감전시키고(galvanize), 감전된 표상요소와 외적 정보에 의해 인과귀인이 일어나게

된다. ... 표상의 내용과 그 사회적 성격의 중요성을 귀인이론에서 인식하게 될 때, 귀인이론은 더욱 풍성한 이론으로 그리고 덜 기계적인 이론으로 발전될 수 있다. ... Heider와 Kelley보다 먼저 귀인이론을 제시한 Fauconnet가 귀인을 표상과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표상을 귀인에 관련시키는 것은 오랜 방황 끝에 본래의 고향으로 귀향하는 것이다(1981, p.208)'

위의 내용은 첫째, 귀인의 성격이 사회구성원의 표상 내지 인지적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둘째, 외적 자극이 특정한 표상요소를 작동시킨다는 점, 셋째, 표상과 같은 인지적 구성을 귀인에서 중요하게 다룰 때 귀인이론은 풍부한 이론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점, 넷째, 아주 초기의 귀인적 발상에서는 인지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점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에 따라 귀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여러 학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예컨대 Semin(1980)은 원시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귀인에 있어서는 ANOVA모형이 거의 적합하지 않으며, Agar(1981)는 민족학적 특성을 귀인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원시적(primitive)' 귀인모형이 민족학적 연구에서 자주 보고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Levy-Bruhl(1925)은 뉴우기니아 Motumotu에 사는 원주민들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흑막열의 원인을 설편사, 양, 염소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의 초상화때문인 것으로 귀인시킴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Jahoda(1979)는 원시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논의는 주로 문화권에 따르는 표상과 귀인의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를 다시 개인 또는 집단수준으로 연장시켜서 해석해 볼 때, 개인에 따라 경험과 표상이 다를 수 있다면 귀인의 결과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추론이 성립될 수 있다. 그 동안의 개인차 심리학의 연구는 인지구조나 표상에 있

에서의 개인차나 집단간 차이를 전제로 이루어져 왔으며, 집단고정관념, 사회적 행동이나 사건에 관한 주관적 해석을 다루는 사회적 지각이론과 장이론은 인지의 세계는 물론 인지와 관련된 동기적 자아적 구성이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또 다르다는 연구결과를 일관성있게 제시하여 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개인간 또는 집단간 귀인의 차이에 관심을 두는 연구에서는 문화간, 민족간의 인지구조적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간 또는 집단간의 인지구조상의 차이를 고려할 때, 귀인현상에 대한 원인론적 이해와 설명이 풍부해질 수 있다. 인지적 구성과 귀인간의 관계를 앞서 논의한 유발귀인세트와 관계하여 도식화(그림 2)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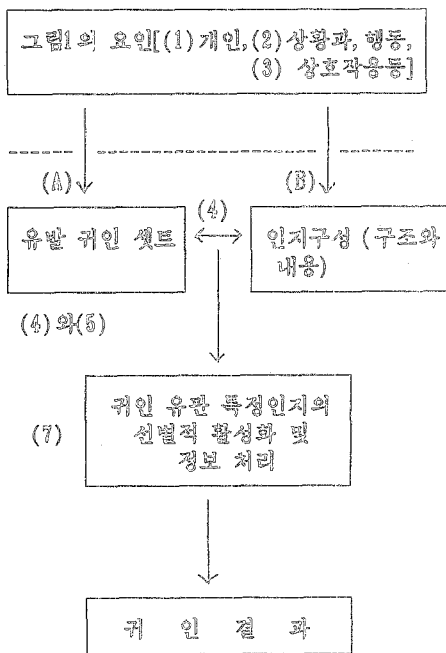


그림 2. 유발귀인세트, 인지적 구성, 귀인의 결과간의 관계모형

위의 그림에서 유발귀인세트(4)는 인지적 구조와 내용 속에서 유발된 귀인세트에 대응하는 인지적 요소를 유발시키며, 유발된 인지요소는 외적 정보와 상호작용하면서 정보처리 되어(6) 귀인으로 결과된

다. 그러나 위의 그림에서 점선(---)으로 구분된 첫 부분에 해당되는 요소들(1~3)은 앞에서 논의된 바와같이 유발귀인세트에 선행요인으로 작용(A)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지적 구조라 내용속에서 상응하는 인지요소를 도식적으로 활성화(B)시키는 기능도 한다는 점에서, 그 과정은 동기적 과정과 인지 도식적 과정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여기서 인지 도식적과정은 귀인상황에서 외적 정보 자극에 접하여 귀인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외적 정보상응적 인지구조가 도화되어 곧바로 외적정보의 해석과 이해에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Mescovici의 사회적 포상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해석을 요하는 외적 정보단서에 접하여 지각자의 포상이 외적 정보단서에 거점화(anchoring) 되고 객관화(objectifying) 되는 과정이 곧 인지도식적 귀인과정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또한 사회적 인지의 관점에서 보면 외적 정보단서를 도식(schema), 각본(script), 원형(prototype)에 의해 해석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인지적 도식에 의한 귀인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귀인적 사고와 관련하여 Wells(1981)가 제안한 사회적 과정(socialized processing)은 도식적 처리의 기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는 귀인적 판단의 과정을 원자론적 정보처리방식(originating processing)과 사회화된 정보처리방식(socialized processing)으로 구분하였으며 여기서 원자론적 정보처리 방식은 외적정보에 기초한 정보처리를, 사회화된 정보처리방식은 학습과 사회화를 통해 습득된 인과논리 및 문화적 가설에 의한 정보처리 방식을 지칭한다. 도식적 귀인과정은 바로 사회화된 정보처리과정에 해당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원자론적 정보처리방식은 귀납적 귀인과정에 가까우며, 사회화된 정보처리 방식은 연역적 귀인과정에 가깝다. 여기서 귀인과정은 전통적 귀인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귀납적 과정이외에 사회적 포상이론의 캠프에서 귀인을 접근하는 사회적 귀인이론가들이 산발적으로 제안해 왔던 연역적 과정을 포함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끝으로, 그림 2의 7요소를 부연설명하면, 이속에는 두가지 성격의 하위요소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귀인의 내용을 형성하는 인지적 요소이며, 다른 하나는 귀인에 관여된 인지내용 요소들을 처리하는데 관여되는 정보처리 양식이다. 이 두가지 하위요소는 서로 상관되어 일어나면서 동시에 그 성격면에서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인지적 내용이 정보내용이나 지식요소에 해당된다면, 정보처리양식은 이러한 지식요소나 정보내용을 귀인으로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정보처리형태(information processing modality) 또는 모듈(module)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인지의 연구에서 인지내용뿐 아니라 인지의 양식(cognitive style)으로 구분해서 개념화하는 방식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앞서 인지내용을 논하는 과정에서 원시적 문화인과 현대적 문화인 간에 그 내용의 복잡성 면에서 차이가 났을 수 있음을 논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화의 특성에 따라,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 귀인적 정보처리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 삼단논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원시문화 속의 사람들은 삼단논법적 귀인양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ANOVA모형을 생활 속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다요인 공변분석양식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인지내용과 인지양식을 구분하고, 이 두요소에서부터 다시 문화적, 집단적, 개인적 차이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귀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귀인양식을 분석의 모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자체는 곧 귀인의 정보처리적 접근이 사회심리적 문화인류학적 지식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위에서 귀인의 통합모형에 관여되는 요소와 과정을 두개의 도식모형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두 도식을 통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3). 위에 제시된 모형은 귀인에 관여되는 사회심리적 요소와 이들 요소 간의 관계성을 기본으로한 귀인과정 모형으로, 이 모형 속에는 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적 사회인구학적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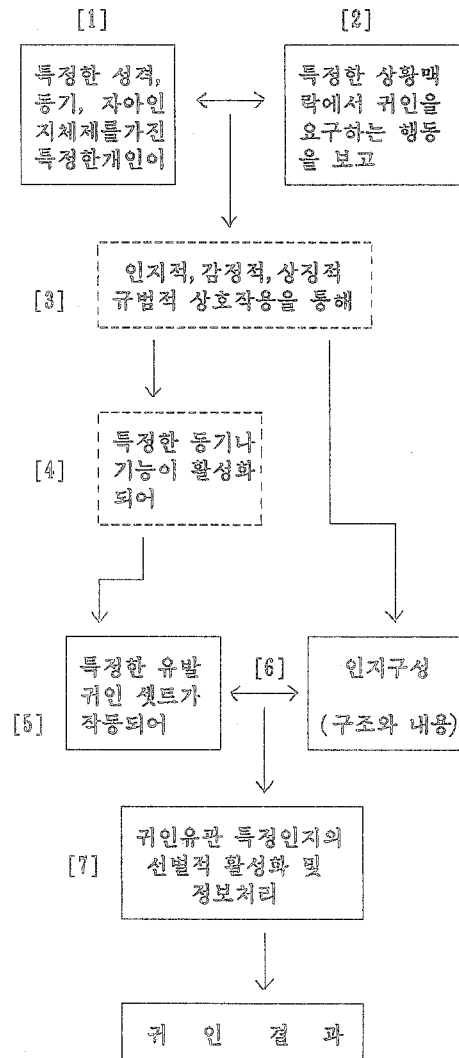


그림 3. 사회심리적, 통합적 귀인모형

단적 특성과 속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적 귀인론자나 사회표상이론가들은 귀인과정에 심리 외적 변인을 고려할 것을 제안해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귀인 연구에서도 성별, 연령, 사회계층, 소속집단등을 귀인과 관련시켜 연구해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특성적 변수나 기타의 심리 외적 변수가 왜,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귀인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어서 산발적인 해석에 머물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에서 제시한 모형은 이러한 심리외적 변수들이 어떠한 요소나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귀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수있다고 사료된다. 예컨대 내-외집단 상황에서 내집단의 구성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집단자아양적 귀인을, 외집단의 구성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집단자아적귀적 귀인을 하게 될 경우, 내-외집단 특성이 제 4요소인 동기적 과정과 제 5요소인 귀인셋트유발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상반되는 방향의 귀인적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설명할 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앞서 논의된 제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VI. 결 론

전문적 심리학에, 행동주의적 접근에 반기를 들고 출발한 귀인이론은 그동안 파라다임적 혁명이라 할 만큼 규범적 세력을 구축해가면서 심리학은 물론 사회학을 비롯한 행동과학 전반에 행동주의에 비견할 만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세력의 증대와 비례하여 심리학의 캠프 내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정비례적으로 고조되면서 귀인이론의 주도이론은 Heider에 Kelley로 이어지는 전통적 귀인이론과 이에 대처하는 사회적 귀인이론이라는 두 분파를 형성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서로 양립될 수 없는 것처럼 논쟁하고 있는 이 두개의 모형을 통합하여 귀인이론 자체를 보다 정교화, 포괄화, 상호보완화하고 이론적으로 보다 체계화되고 응집력있는 이론 모형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적 귀인이론에 대한 비판을 고찰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전통적 귀인모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귀인이론이 갖는 장점을 전통적 귀인이론에 접목시키는 시각을 모색하였다. 이를 기초로 통합적 모형의 기본적 가정이 될 수 있는 명제를 추출하였으며, 이러한 명제

를 이론적 근거로하여 통합적 귀인모형을 삼식적 심리학이라는 사회심리적 틀 속에서 구성하여 보았다. 끝으로 이 모형이 심리외적,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는가를 논하였다. 그러나 이 모형은 어디까지나 서론에 불과한 것으로 앞으로 정교화를 위한 계속적 수정발전과 더불어 모형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가 절충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최순영 (1987) 귀인이론의 비평적 고찰 및 개인 - 사회적 수준으로의 확대모형 제안. 한국사회심리학회지, 3(2), 281-296.
- Agar, A. H. (1981). Ethnography as an interdisciplinary campground. In J. H. Harvey(Ed.), *Cognition, social behaviour and the environment*. Hillsdale, NJ: Erlbaum.
- Antaki, C. (Ed.) (1981). *The psychology of ordinary explanations of social behavior*. London: Academic Press.
- Apfelbaum, E., & Herzlich, C. (1970-71). La theorie de l'attribution en psychologie social. *Bulletin de Psychologie*, 24, 961-976.
- Arcuri, L. (1982). Three patterns of social categorization in attribution memor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271-282.
- Arkin, R., Appelman, A., & Burger, J. (1980). Social anxiety, self-presentation and the self-serving bias in causal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3-35.

- Bradley, G. (1978). Self-serving biases in the attribution process: A reexamination of the fact or fiction ques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56-71.
- Deschamps, J. C. (1983). Social attribution. In J. Jaspars, F. D. Fincham, & M. Hewstone (Eds.), *Attribution theory and research: Conceptual, developmental, and social dimension*. Academic Press.
- Fincham, F. D., & Jaspars, J. (1980).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Man from the scientist to man-as-lawyer.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3). New York: Academic Press.
- Fischhoff, B. (1976). Attribution theory and judgment under uncertainty. In J. H. Harvey et al. (Eds), *New directions in attribution research* (Vol. 1). Hillsdale, NJ: Erlbaum.
- Forgas, J. P. (1981). What is social about social cognition? In J. P. Forgas(Ed.), *Social Cognition*. Academic press.
- Forsyth, D. R. (1980). The functions of attribu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3, 184-189.
- Greenberg, J. & Rosenfield, D. (1979). Whites' ethnocentrism and their attributions for the behaviour of blacks: A motivational bias. *Journal of personality*, 47, 643-657.
- Hamilton, V. L. (1980). Intuitive psychologist or intuitive lawyer?: Alternative models of the attribution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767-772.
- Harvey, J. H. (1981). Do we need another gloss on attribution theor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 301-304.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John Wiley.
- Hewstone, M. (1981). *Social dimensions of attribu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xford.
- Hewstone, M. (1983). The role of language in attribution processes. In J. Jaspars et al. (Eds.), *Attribution theory and research: Conceptual, developmental and social dimensions*. London: Academic Press.
- Hewstone, M., & Jaspars, J. (1982). Intergroup relations and attribution processes. In H. Tajfel (Ed.),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Cambridge/Paris: Cambridge University Press/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 Hewstone, M., & Jaspars, J. (1983). Social dimensions of attribution. In H. Tajfel (Ed.), *The social dimensions: European developments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Paris: Cambridge University Press/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 Hewstone, M., Jaspars, J., & Lalljee, M. (1982). Social representations, social attribution and social identity: The intergroup images of public and comprehensive schoolboy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241-269.
- Jahoda, G. (1979). A cross-cultural perspective o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5, 142-148.
- Jaspars, J. (1983). The process of casual attribution in common sense. In M. Hewstone (Ed.), *Attribution Theory*. Basil Blackwell.
- Jaspars, J., Hewstons, M., & Fincham, F. D. (1983). Attribution theory and research: The state of the art. In J. Jaspars, F. D. Fincham, & M. Hewstone (Eds.), *Attribution*

- theory and research: Conceptual, developmental and social dimensions.* Academic Press.
- Jones, E. E., & Davis, K. E. (1965). From acts to dispositions: The attribution process in social percep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New York: Academic Press.
- Jones, E. E., & McGillis, D. (1976). Correspondent inferences and the attribution cube: A comparative reappraisal. In J. H. Harvey, W. J. Ickes, & R. F. Kidd (Eds.), *New directions in attribution research* (Vol. 1). Erlbaum.
- Kelley, H. H. (1967). Attribution theory in social psychology. In D. Levine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Neb: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Kelley, H. H. (1972). Causal schemata and the attribution process. In E. E. Jones et al. (Eds.),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 Kelley, H. H. (1973). The processes of causal attribution. *American Psychologist*, 28, 107-128.
- Kelley, H. H. (1980). The causes of behaviour: Their perception and regulation. In L. Festinger (Ed.), *Retrospections on social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ruglanski, A. W., & Ajzen, I. (1983). Bias and error in lay epistemolog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 1-44.
- Kuhn, T. S.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ger, E. J. (1978). Rethinking the role of thought in social interaction. In J. H. Harvey et al. (Eds.), *New directions in attribution research* (Vol. 2). Hillsdale, NJ: Erlbaum.
- Levy-Bruhl, L. (1925). *How natives think*. New York: Alfred A. Knopf.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uri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scovici, S., & Hewstone, M. (1983). Social representations and social explanations: From the naive to the 'amateur' scientist. In M. Hewstone (Ed.), *Attribution theory*. Basil Blackwell.
- Nisbett, R. E., & Ross L. (1980). *Human inference: Strategies and shortcomings of social judge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Rosch, E., & Lloyd, B. B. (1978). *Cognition and categorization*. Hillsdale: Erlbaum.
- Schank, R. C., & Abelson, R. P. (1977). *Scripts, plans, goals and understanding*. Hillsdale, NJ: Erlbaum.
- Schultz, T. R., & Schleifer, M. (1983). Towards an refinement of attribution concepts. In J. Jaspars et al. (Eds.), *Attribution theory and social dimensions*. London: Academic Press.
- Schutz, A. (1970). *On phenomenology and social relations*. In Wagner, H. R.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emin, G. (1980). A gloss on attribution theory.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291-300.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

- 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Monterey, California: Brooks/Cole.
- Taylor, S. E. (1981). The interface of cognitive and social psychology. In J. H. Harvey (Ed.), *Cognition, social behaviour and the environment*. Hillsdale, NJ: Erlbaum.
- Taylor, D. M., & Doria, J. R. (1979). *Self-serving and group-serving bias in attribution*. Montreal, Mineo: McGill University Press.
- Taylor, D. M., & Jaggi, V. (1974). Ethnocentrism and causal attribution in a South Indian contex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5, 162-171.
- Tetlock, P. E., & Levi, A. (1982). bias: On the inconclusiveness of the cognition-motivation debat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 68-88.
- Thomas, W. I. (1928-1966). Situational Analysis: The behaviour pattern and the situation. In M. Janowitz (Ed.), *Social organization and social person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horngate, W. (1976). Must we always think before we a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 31-35.
- Thorngate, W. (1979). Memory, cognition and social performance. In L. H. Strickland (Ed.), *Soviet and Western perspectives in social psychology*. Oxford: Pergamon Press.
- Weber, M. (1947).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T. Parsons (Ed.). Glencoe: The Free Press.
- Wells, G. (1981). Lay analyses of causal forces on behaviour. In J. H. Harvey (Ed.), *Cognition, social behaviour and environment*. Hillsdale, NJ: Erlbaum.

A Proposal of a Comprehensive Attribution Model
Integrating Normative and Social Models.

Sang Chin Choi and Sun Young Choi

Chung-Ang University

The present paper was addressed to developing a comprehensive theoretical model for attribution in which two competing paradigms, i.e., normative and social, could be incorporated in a complementary manner within a coherent theoretical frame work. Criticisms of social model theorists against Heiderian and Kelleyian models were reviewed and reexamined with reference to the original notion as conceived and statement as made by the originator of the theory, that is, Heider. Basic propositions were postulated on the basis of the above analyses and reified into interrelated theoretical terms, through which factors and processes to be involved in the process of attribution were identified and theorized at a conceptual level. Finally, an integrative model for attribution was proposed and discussed.